

##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심리학 연구

이 은 진<sup>†</sup>

경기대학교 본부대학

본 연구는 심리학 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최근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연구들은 '성적 자기주장'과 '성적 자기'로 재해석되어 원조교제, 이성교제와 부부관계의 맥락에서 진행되어 왔다. 연구자들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상황들과 성적 자기결정권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심리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활용된 변인들은 성 고정관념, 성적 대상화, 성 의사소통, 이성이나 부부관계 만족도, 성태도와 성 행동 등이었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재해석되거나 분화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로 새롭게 영역을 넓혀 나갔다.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고 추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 데이트 폭력, 성폭력, 성적 대상화, 성 의사소통

---

<sup>†</sup> 교신저자 : 이은진, 채비심리상담소, (06292)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13 2911  
Tel : 02-392-7114, E-mail : lej1130@hotmail.com

오랫동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혼인관계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간통 및 상간 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그러나 2015년 2월 헌재는 '사회구조 및 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통에 대해 위헌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자 2009헌바17). 지금까지 결혼제도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의 남녀 관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제공해 주며, 간통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왔던 헌재는 2015년에 이르러 '간통죄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가 상황과 사회 변화에 따라 달리 적용되거나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왔다. 여기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에게 부여되는 성과 관련한 행복추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적 자유와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 성별정체성과 성정체성으로 구성되는 성적인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성생활의 가능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sup>1)</sup> 법적인 시각에서 헌재는 판례(2002)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은 각 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

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헌재 2002. 10. 31. 99헌바40 등)<sup>2)</sup>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구성된 성매매 방지법의 시행 이후, 처벌의 위기에 몰린 성매매알선업자나 집결지 등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하며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는 국민에게 보장하는 인권의 한 종류라는 것 이외에 우리 사회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갈등과 모순을 보여주는 현장의 소리와도 연결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논리는 여성이 성적인 권리를 스스로 결정·선택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는 성폭력이나 성매매의 피해에 대한 책임, 역시 여성이 져야 한다는 주장을 낳기도 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학내나 군대내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들이 언론에 유난히 많이 거론된 2015년, 여성심리학회도 우리 사회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나 논란에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한국심리학회의 2015년 연차대회에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제로 여성학자, 법학자와 심리학자들이 함께하는 융합 심포지움을 계획한 것도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포지움은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대학생의 성적자기 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성인

1) 정주은(2015). 성폭력 피해 생존자와 성적 자기결정권,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2) 안귀옥(2015). 판례로 본 성적 자기결정권의 변천,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실증연구와 성폭력 피해 생존자와의 상담 현장에서의 소리를 필두로 판례로 본 성적 자기결정권의 변천, 성적 자기결정권의 취약성에 대한 법적인 시각과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적 왜곡’이라는 주제의 연구발표로 구성되었다(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2015)<sup>3)</sup>. 이러한 학술발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제가 다양한 시각과 담론을 제공하며, 가정폭력, 테이트 폭력과 성폭력, 법적인 규제,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애착과 인지적 왜곡 등의 심리적인 변인들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알리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들에서 성적 자기주장(박선미, 송원영, 2012;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2015), 성적 자기(손영미, 김효창, 2009) 등으로 대상에 맞게 수정된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이나 심리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을 주제별로 크게 나누어

- 3) 2015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심포지움9 (융합): 건강한 사회를 위한 성적 자기결정권
- (1)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성인에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경인, 최수미(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천성문(경성대학교 교육학과)
  - (2) 성폭력 피해 생존자와 성적자기결정권, 정주은 (여성주의상담연구회)
  - (3) 판례로 본 성적자기결정권의 변천, 안귀옥 (법률사무소 희은)
  - (4) 그토록 취약한 성적 자기결정권, 오정진 (부산대학교 법학대학원)
  - (5)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가해자의 인지적 왜곡, 노일석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면, 성역할, 의사소통, 성만족도, 이성관계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인 변인들을 통한 연구들(김영기, 한성열, 한민, 2011; 변금령, 이영호, 2012)과 원조교제, 가정폭력, 테이트 폭력, 성폭력 등의 맥락 하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받거나 위협해 지는 상황들에 대한 연구들(김미애, 2010; 김시업, 김지영, 2002; 김은경, 엄애선, 2010)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성희롱이나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의 내면화와 관련되는 성적 대상화 관련 연구들도 섭식장애나 성형의도 등과 연관 지어 진행이 되어져왔다(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장지원, 이지연, 정진이, 2012). 예를 들어, 손은정(2006)은 대상화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정신 건강 문제들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해 새로운 대안적인 관점을 제안하고자 했다. 대상화 이론에서는 여성의 신체는 남성의 신체보다 타인에 의해 관찰되어지는 성적 대상화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고, 여성들은 반복되는 성적 대상화 경험을 통해 관찰자의 관점을 자신의 주요 관점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자기 대상화를 발달시키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자기 대상화 과정에 의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들을 하게 되며,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이 축적되어 섭식 장애, 우울증, 성기능 장애와 같은 정신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여성의 정신 건강 문제들이 배우자로부터의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력 경험에서도 기인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Bremner, Vermetten, Vythilingam, Schmahl, Elzinga, & Charney, 2004; New, Fan, Murrough, Lin, Liebman, Guise, Tang, & Charney, 2009; Nol-Hussong, Otrir, Laeer, Wohlschaeger, Zimmer, Lahmann, Henningsen,

Toelle, & Guendel, 2010).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뇌구조 및 뇌기능 연구들을 개관한 김영운(2014)은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과 성인이 되고 난 후 배우자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이 합쳐져서 뇌 기능의 변화와 구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Fonzo, Flagan, Sullivan, Allard, Grimes, Simmons, Paulus & Stein, 2013; Nol-Hussong et al, 2010). 이처럼 여성에게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폭력과 연결되어지는 경우에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유발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사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는 심리학, 철학, 여성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들 역시 아동, 청소년, 성인들의 성관련 가치관 확립, 성태도와 성행동에 대한 교육의 장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연계 분야의 학문적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별도의 장에 남겨두기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연구의 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들이 어떻게 조명되고 있는 지에 대해 주목하고 그 연구 성과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더 이상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논리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이루고 폭력을 예방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연구주제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리는 많은 결정들과 마주하는 관계들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뿐 아니라 법적인 판단이나 철학적인 사고에 기초

한 여성주의 실현의 장에서도 주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법적인 영역에서의 판단은 판례를 통해 법적인 처벌여부를 결정지어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성에 관련된 풍속을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간통죄, 강간, 혼인빙자간음, 성희롱, 성폭력에서 성매매에 관한 일상 속에서 접하는 성과 관련된 사건, 사고와 논쟁들 속에 가치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종류의 성폭력을 논하면서, 단지 성적인 권리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권리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규정한다면 성폭력이나 성매매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제도라는 사회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여성주의적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다. 특히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로서 남녀가 불평등하고 퇴폐·향락적인 산업이나 문화가 만연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몸과 성을 상품화하여 발생하므로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하므로(변혜정, 2006; 한국여성연구소, 1999)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성매매를 포함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성적 자존감과 주체성에 대한 침해로 이해해야 한다는 여성학자의 주장(변혜정, 2006)은 현재 우리 사회가 단지 '동의할 수 있는 권리'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좁게 사용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소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데이트 폭력, 성폭력, 성매매, 원조교제 등으로부터 여성이 자신을 보호하거나 주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남성을 포함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자

신의 몸에 대한 주인이므로 개인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결정 과정'에만 중점을 둔 주장들은 때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개인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 내용이 사회나 상대방과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맥락 안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추상적이고 현실 초월적인 논리(변혜정, 2006)'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계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주의 학자들은 성폭력, 성매매와 일반적인 성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경험적 주장들을 정리해 왔다. 심리학자들은 여성주의 실천을 위한 활동가들에게 법학자들과 함께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근거가 되는 연구결과들을 제공하고 있다(공춘옥, 김봉환, 2014; 김수지, 2012; 김시업, 김지영, 2002; 김영운, 2014; 김현정, 이수정, 2007; 이수정, 양원석, 2011).

심리학 연구 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청소년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이'나 '성적 자기'라는 용어로 수정되어 사용되고 연구되어 왔다. 성적 자기주장이란 성적 자율성이 내재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로서 여성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피하고, 상황적 분별력과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이지연, 이은설, 2005). 이러한 성적 자기주장은 개인이 성생활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고, 성적 자기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과도 깊이 관련되는 능력인 것이다. 개인의 성적 자기주장 정도는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들이나 위험한 성행동 횟수, 데이트 성폭력 피해 등과도 상관이 높았다(김영기 등, 2011; 변금령, 이영희, 2012; 이지연, 이은설, 2005). 그러므로 성적 자기주장은 이성교제 중 원치 않는 성행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중요하며, 개인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성적 자기주장의 행사 능력으로서도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박선미, 송원영, 2012). 이러한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나 성역할 고정 관념, 부모나 부모-자녀 의사소통, 데이트 폭력 허용도, 피해나 학대를 포함하는 성 관련 경험들과 자아존중감,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건강 수준을 들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박선미와 송원영(2012)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성적 자기주장의 하위요소인 원치 않는 성 접촉에 대한 자기주장인 '성 접촉 거절 요인'과 성병과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임신과 성병 예방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상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주장 능력이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성적 자기주장의 관계를 살핀 연구에서 이경인, 최수미와 천성문(2015)은 대학생들이 성적 갈등 상황에서 성적 자기주장이 필요할 때,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정도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성적 자기주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녀는 부모와 긍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으며 안정된 애착을 갖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성차의 관점에서 성태도와 성행동을 연구한 양동욱(2015)은 남녀가 제시된 성행동 상황 시나리오를 읽고 여성이 거절을

하는 이유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여성 참가자는 남성 참가자보다 시나리오 속 여성이 '순결 의식', '관계 변화', '현실적 문제'의 이유로 상대의 성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았을 때,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에, 남성 참가자는 여성 참가자보다 '성규범'과 '조종'의 이유로 상대의 성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았을 때,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은 진정한 거절이 아닌, 명목상 저항이라는 믿음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연구자는 성적 의사소통의 남녀 차이로 이러한 결과를 논의하였다.

성만족도나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소통과 관련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들은 부부(김영기, 한성열, 한민, 2011; 변금령, 이영호, 2012), 연인들(정자림, 이영호, 2012)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변금령과 이영호(2012)는 기혼 남녀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 성 의사소통에 포함되는 변인들로 성적 자기노출, 성태도(sexual attitude), 성적 자기주장성(sexual assertiveness), 성 주체성(sexual regulation)과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consenting to unwanted sex)를 들었다. 이러한 성 관련 요인들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성생활의 질을 포함하는 관계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도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손영미와 김효창(2009)은 상호만족적인 성적 스크립트(Sexual Script)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으로 '성적 자기'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성행위를 하는 주체로서의 자기와 성행위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구조로서의 자기를 포괄하는 성적 자기는 주체적이지

못할 경우, 부부성생활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합리화시켜 성적 자기를 왜곡하게 되고, 위험한 성행위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였다. 반면, 주체적인 성적 자기는 배우자와의 상호작용과 개인내적 성찰과 평가를 통해 자신의 성 가치관을 형성하며, 성적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탐색을 추구하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성적 자기를 알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성적인 특성과 행동 및 취향에 대한 개인적 이해를 의미하며,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조율이 가능하므로, 바람직한 성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Byers & Demmons, 1999; Conrad & Milburn, 2001).

건강하고 만족스런 관계를 위해 필수적 요건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맥을 같이하는 성적 자기주장이나 성적 자기의 실현에 대한 강조가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어 왔다. 또한 연구자들은 주체적인 성적 자기를 이루어 가는데 장애가 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폭력 상황들 속에서 여성들의 성적 자기주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연구들로 이어져 왔다. 김영운(2014)은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피학대 여성들의 뇌 관련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피학대 여성들은 반복된 뇌손상과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으로 신체와 인지기능 손상이 나타나고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로 외상 후 장애, 정서 장애, 면역 기능장애와 심혈관계 질환 등의 만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심리학 연구주제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법학과 여성학에서 정립하는 논리적인 영역과 개념화를 바탕으로 개인이 가진 다양한 심리적 기제와 변인들이 자신의 성 태도와 성 행

등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심리학 연구들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관련된 상황들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노력들은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장을 위한 방안이나 치료와 상담의 임상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축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다양한 폭력 상황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와 관계되는 폭력 상황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으로 다양하며, 원조교제와 성매매 역시 여성에게 행해지는 성 폭력의 한 가지 형태로 주목해 보고자 한다. 김시업과 김지영(2002)은 원조교제의 원인으로 중고생의 변화된 성의식을 들면서, 자유에 바탕한 성의식을 상대와 합의한 성행위, 모르는 사람과의 즐기는 성행위, 돈 받고 하는 성행위, 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원조교제의 사회문화적 구성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원조교제가 성관계를 포함한 데이트라는 것을 인정하고 원조교제가 지닌 성매매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으나 원조교제를 일시적인 일탈행위로 보고 있음을 밝혔다. 즉 청소년들은 성매매와 달리 원조교제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어느 정도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원한다면 원조교제 상황을 쉽게 빠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후 원조교제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비판과 함께, 피해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들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들까지 발생되면서(이수정, 양원석, 2011), 원조교제는 청소년과 여성에게 가해지는 또 하나의 폭력의 창구가 되었다. 이제 원조교제 과정에서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또한 원조교제의 경험이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청소년들이 중고시절에 성적 탈선을 경험한 후,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사회적 환경 속에서 낙인찍히게 되면서 향락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99).

성매매여성들의 복합외상에 대한 연구에서 탈 성매매 후 보호를 받고 있는 쉼터 여성 집단(성매매 집단)은 성폭력 피해 집단의 프로파일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자기비하와 소외가 두드러졌고 자기 가치와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단절된 느낌을 호소하였다(김수지, 2012). 또한 성매매 집단은 일반인 집단보다 아동기 외상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고, 아동기 분리 경험과 성매매 중 고립과 배신의 경험이 복합외상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MMPI-2 척도들에 대한 분석에서도 일반인 집단에 비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우울, 불안, 신체화, 기대적 정신상태 등 임상적 관심이 필요한 증상을 나타냈고 자존감이 낮고 분노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 경험 과정에서 여성들이 성적 자기를 왜곡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관찰되어지거나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성폭행에서 성적인 응시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성적 대상화 경험을 함으로써(손은

정, 2006)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들의 성 매수 경험에 따른 성의식, 성태도와 성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이은진, 2009)에서 성 매수 경험은 부부나 연인간의 관계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지에 대한 성의식의 차이는 성매수 경험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성매매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해 보면, 성매매와 관련된 성의식이나 태도는 개인의 성매매에 대한 경험이나 성차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적인 의식이나 법률적인 판단의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 성폭행 경험 중에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의 현장이 다소 거리가 있게 느껴진다면,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은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자주 보고 되는 여성의 폭력 피해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윤경과 송원영(2014)는 가정폭력 경험이 암묵적 성 고정관념,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있었다고 보고하면서, 성 고정관념이 데이트 폭력의 피해요인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을 의존적이고 피동적인 존재로 여기는 태도로서 여성의 의사결정 능력을 무시하고 경계를 침범하기 쉽게 만든다. 데이트 성폭력이란 '성적으로 흥미를 가진 파트너가 상대방의 거부를 수용하기를 거절하고, 성적 응낙을 받아내기 위하여 심리적인 압력이나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이지연, 이은설, 2005),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추행과 성폭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남녀 차별적인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가 성 고정관념화 되고, 이는 데

이트 성폭력을 당하거나 행사할 가능성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하였다(김은경, 엄애선, 2010).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여성들은 성적 피해에 취약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의 성적 요구에 단호한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고 한다(Byers, 1996). 성역할과 데이트 폭력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성을 약화시켜서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하거나(이지연, 이은설, 2005), 성에 대한 왜곡된 규범을 가지도록 하거나, 강압적인 성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실제 성폭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은경, 엄애선, 2010; Greendlinger & Byrne, 1987; Wheeler, 2004). 유익숙과 박경(2004)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응낙에 대한 설명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를 통해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성적 경험에서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상담 노력은 남녀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데이트 폭력에 취약해지고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연결 고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피해경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경험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인 어려움과 정체감 손상 등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일상 속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 정신건강과 성적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있어 부부나 이성간의 관계 만족도(김영기 등, 2011; 손영미, 김효창, 2009; 안지인, 고영건, 2014; 정자림, 이영호, 2012), 성적 친밀감과 성행동을 포함하는 성생활의 질과 성적 만족도(변금명, 이영호, 2012; 이윤미, 이영호, 2012)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들의 연구에서 성 태도나 성행동을 정의하는데 있어 성적 자기주장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관계 만족도에 중요한 변인으로 성 의사소통을 들었다. 특히 성 자기주장성이 자신이 원하는 성행동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요구하고 원치 않는 행동이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며, 성 의사소통이 성생활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들을 자유로이 소통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이 두 가지 능력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기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추후 성적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환경이 개인이나 부부, 연인들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보다 면밀히 다루어진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성차에 대한 해석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대상화 경험’과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의 변인들이 거론되어지고 있다(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손은정, 2006; 장지원, 이지연, 장진이, 201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나 성적 대상화로 인한 자기 대상화, 즉 관찰자의 관점으로 자신을 자신의 자아에 내면화하여 결국 관찰자의 시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 수치심이나 불안

감과 함께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Fredrickson & Rogers, 1997). 현재까지 대상화 이론을 토대로 진행된 연구들은 외모에 대한 수치심과 불안, 그리고 섭식 장애와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들, 성형의도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장지원 등(2012)은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들이 아시아 9개국 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성형수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보도(조선일보, 2006)를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가 청소년들 뿐 아니라 국민전체를 병리적인 성형 행동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였다. 성형 중독과 같은 병리적인 성형행동으로 인한 결과는 개인의 삶의 질이나 대인관계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신체감시나 신체수치심을 줄이기 위한 심리교육 실시도 여성의 정신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구자연과 하은혜(2010)의 연구에 의하면, 신체감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문항으로 ‘나는 내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자주 신경을 쓴다.’ 신체수치심은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멋있게 보이지 않을 때, 못난 사람인 것만 같다.’를 들었다. 이러한 문항들로 측정되는 신체감시와 신체적 수치심 수준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의 결과로도 보이지만, 그 내면화 과정에서 선택하는 성태도와 성행동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형이나 섭식장애, 그리고 자존감 저하와 같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들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식

과 개념을 정리하여 가지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체적인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기의 건전한 성의식이나 성 태도는 성인기의 정서적 안정이나 가치관 확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들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건전한 성의식이나 성행동을 거르지 않고 보여주는 언론보도나 매스컴, 학교와 가정 가까이로 들어왔은 성 관련 업소들은 청소년과 여성들, 그리고 가족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이 심리학 연구 영역으로 들어와 진행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 보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심리학 연구 내에서 청소년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율성이 내재되어 나타날 수 있는 성적 의사소통 능력을 포함하는 '성적 자기주장'이나 '성적 자기'라는 용어로 수정되어 사용되고 연구되어 왔다. 개인이 성생활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고, 성적 자기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장과도 깊이 관련되는 능력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주장 정도는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들이나 위험한 성행동 횟수, 데이트 성폭력 피해 등과도 상관이 높았다. 그러므로 성적 자기주장은 이성교제 중 원치 않는 성행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중요하며, 개인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행위에 대

해 스스로 결정하는 성적 자기주장의 행사 능력으로서도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나 성역할 고정 관념, 부부나 부모-자녀 의사소통, 데이트 폭력 허용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나 학대를 포함하는 성 관련 경험들과 자아존중감, 우울과 불안 등의 정신건강 수준과 성적 주장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와 관계되는 폭력 상황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등으로 다양하며, 원조교제와 성매매 역시 여성에게 행해지는 성 폭력의 한 가지 형태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시대와 사회 제도의 변화에 따라 그 영역과 해석된 의미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났다(공춘옥, 김봉환, 2014; 김현정, 이수정, 2007;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한국여성연구소, 1999). 이와 연결된 본 연구의 제한점은 현재까지 진행된 심리학 영역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는데 있어 체계적이고 정리된 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 내에서 다양한 개념이나 용어들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조각적으로 정의되고 연구되어 왔으나 통일된 체계를 마련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는 연구의 제한점인 동시에 향후 연구에서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해 본다.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성적인 자기'와 '성적 자기주장'에 관련된 심리학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고 이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다. 첫째,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여성들에게만 한정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한 응낙 수준이나 행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국내외 연구들에서 보고되었으나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한 응낙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보다 남성들에게서 응낙 수준과 응낙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대한 응낙을 다룬 연구(안지인, 고영진, 2014)에서 연인 사이의 성적 관계가 균등한 것이 관계 만족도의 편차를 줄일 수 있음을 보였고, 성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들도 성별에 의한 차이를 제거하여도 성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성생활의 질과 사랑 요소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는 연구들은 남녀 모두의 관계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시각만이 아닌 남녀를 포함하는 연구들이 진행됨으로써 그 결과들은 남녀의 성차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남녀가 서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교정하고 함께 관계 만족도와 정신건강 수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둘째, 대상화 이론은 자기 대상화라는 개인차를 보이는 심리적 변인을 제안하였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으며(손은정, 2006), 이는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설명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는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성형의도나 섭식장애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그 연구 결과를 상담이나 교육 장면에서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 대상화의 과정과 경험에 대해 더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대상화 이론을 적용한 연구의 영

역을 보다 확대해 나감으로써 여성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개인이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개념화하는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에 관련되는 성적 자기주장과 성적 자기에 대한 연구들과 가정폭력에서 시작되어 데이트 폭력 등의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고리를 설명하는 연구결과들은 여성인권 확장을 위한 현장과 성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속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피학대 여성은 고립감,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의 결여, 만성적 우울증과 무기력을 나타내는데, Walker(1984)는 이러한 정서, 지각, 의식 차원에서 보이는 특성들을 '피학대 여성 증후군'으로 이름 지어 이들의 절망감과 의존적 성향을 개념화하였다(김현정, 이수정, 2012; 이수정, 2006). 또한 연구자들은 학대남편을 살해한 피학대 여성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에 대한 논란은 판결과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피학대 여성의 심신미약과 같은 정신장애 주장에 대해 그녀들을 병리화시키고 낙인과 편견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다(이수정, 2006; Follingstad, 1996; Wrightsman, 2001). 이러한 연구들이 남성 중심의 연구나 가치 판단의 틀로서는 바로 보거나 들을 수 없었던 법적인 판단이나 현장의 소리들을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새로운 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되는 다양한 연구들을 개관하려 하였으나 동성애나 장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이나 침해와 관련되는 요인이나 기제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자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마지

막 제안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간통죄가 합헌이 된 시대에 기혼 남녀가 가지는 성의식이나 성태도, 성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 사회의 변화된 성의식과 성적 가치를 확인하고 시대에 맞는 성교육과 성과 관련된 정책들을 구상하고 펼쳐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어둡고 폭력적인 성으로 인한 고통의 결과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는 활기차고 기쁨을 주는 성 생활을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공춘옥, 김봉환 (2014).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성장(thriving)' 경험의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4), 409-431.
- 구자연, 하은혜 (2010). 한국판 청소년용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K-OBC-Y)의 타당화 연구. 놀이치료 연구, 13(3), 141-158.
- 김미애 (2010). 가정폭력 유발요인과 폭력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변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587-611.
- 김수지 (2012). 성매매 여성의 복합외상과 MMPI-2 프로파일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705-726.
- 김시엽, 김지영 (2002). 미성년자 원조교제의 사회문화적 구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15.
- 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가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 여대생과 일반 여대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13-634.
- 김영기, 한성열, 한민 (2011).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성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2), 199-218.
- 김영운 (2014).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뇌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4), 385-408.
- 김은경, 엄애선 (2010).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59-777.
- 김현정, 이수정 (2007). 학대남편을 살해한 미학대 여성의 판결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1), 43-62.
- 박선미, 송원영 (2012).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성관련 경험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17(2), 265-280.
- 변금령, 이영호 (2012). 기혼 남녀의 의사소통 유형이 성생활의 질 및 사랑 요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623-652.
- 변혜정 (2006).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한국성폭력상담소 총서, 도서출판동녘.
- 손영미, 김효창 (2009). 상호구성적 성지수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2), 241-267.
- 손은정 (2006). 대상화 경험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399-417.
- 양동욱 (2015).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이유 평가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2), 205-224.
- 안지인, 고영건 (2014). 성인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 응낙과 애착이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3),

- 233-251.
- 유의숙, 박 경 (2004). 이성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모형-대학생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93-812.
- 이경인, 최수미, 천성문 (2015).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성인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심포지움 자료집(미간행)*.
- 이수정 (2006). *최신범죄심리학*. 서울: 북카페.
- 이수정, 양원석 (2011). 여성의 범죄자화 과정에 대한 소고.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909-932.
- 이윤미, 이영호 (2013). 기혼여성의 오르가슴 장애유무와 유형에 따른 성태도 및 성행동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1), 30-51.
- 이은진 (2009). 성인 남성의 성구매 경험에 따른 성매매와 성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3), 377-398.
- 이지연, 이은설 (2005).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설명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265-282.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실태 및 방지대책연구*.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연구.
- 장지원, 이지연, 장진이 (2012). 여고생의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성형의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559-577.
- 정자림, 이영호 (2012). 한국판 이성관계 간섭 행동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09-225.
- 최윤경, 송원영 (2014). 여대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명시적 암묵적 성 고정관념의 대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4), 433-446.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학*. 도서출판 동녘.
- 한국심리학회 (2015). *심포지움 9: 건강한 사회를 위한 성적 자기결정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여성연구소 (1999). *새 여성학 강의: 한국사회, 여성, 젠더*. 도서출판 동녘.
- Bremner, J. D., Vermetten, E., Vythilingam, M., Afzal, N., Schmahl, C., Elzinga, B., & Charney, D. S. (2004). Neural correlates of the classic color and emotional stroop in women with abuse-relat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iological Psychiatry*, 55, 612-620.
- Byers, E. S. (1996). How well does the traditional sexual script explain sexual coercion? Review of a program of research.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8, 7-25.
- Byers, E. S., & Demmons, S. (1999). Sexual Satisfaction and Sexual Self-disclosure Within Dating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6(2), 180-189.
- Conrad, H., & Milburn, M. (2001). *Sexual Intelligence*. NY: Three Rivers Press.
- Follingstad, D. R. (1996). Forensic evaluations of Battered Women Defendants: Relevant Data to be Applied to Elements of Self-Defense.
- Fonzo, G. A., Flagan, T. M., Sullivan, S., Allard, C. B., Grimes, E. M., Simmons, A. N., Paulus, M. P., & Stein, M. B. (2013). Neural functional and structural correlates of childhood maltreatment in women with

- intimate-partner violence-relat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211(2), 93-103.
- Fredrickson, B. L., & Rogers, T.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73-206.
- Greendlinger V., & Byrne, D. (1987). Coercive sexual fantasies of college men as predictors of self-reported likelihood to rape and overt sexual aggression. *Journal of Sexual Research*, 23, 1-11.
- New, A. S., Fan, J., Murrrough, J. W., Lin, X., Liebman, R. E., Guise, K. G., Tang, C. Y., & Charney, D. S. (2009). A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studies of deliberate emotion regulation and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iological Psychiatry*, 66, 656-664.
- Nol-Hussong, M., Otti, A., Laeer, L., Wohlschaeger, A., Zimmer, C., Lahmann, C., Henningsen, P., Toelle, T., & Guendel, H. (2010).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8, 483-487.
- Walker, L. E. (1984). *Study on the Sentencing of the Battered Woman Who Killed Abuser*. The Battered Women Syndrome. New York: Springer.
- Wheeler, J. G. (2004). The Abstinence Violation Effect in a sample of incarcerated sexual offenders: A reconsideration of the terms Lapse and Relapse.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 Engineering*, 63(8-B), 3946.
- Wrightsman, Lawrence S. (2001). "Battered Woman Syndrome and Domestic Violence". *Forensic Psychology*.
- 1차원고접수 : 2015. 09. 18.  
심사통과접수 : 2015. 09. 21.  
최종원고접수 : 2015. 09. 22.

##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in Psychological Studies

Eunjin Lee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sychological studies o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on women. Previous studies about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with new terms of 'sexual self-assertiveness' and 'sexual self' were examined in the context of several couple relationships. Researchers reported the correlations o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with dating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This study found that violating a person's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 produced bad results on woman's mental health. The psychological variables used in previous studies included the following: gender stereotype, dating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sexual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with romantic and marital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review, researches with the concepts o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were reinterpreted and enriched to new terms of specialized concepts. Lastly, the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Key words* :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sexual self-assertiveness, sexual self, dating violence, sexual violence, sexual communication*